

김용익 작품에 대한 설명

내 작업은 말하자면 모더니즘의 “인증된 이미지 권력”에 흠집내기이다. 모더니즘에 정면으로 반격하여 뒤엎는 것이 아니라 모더니즘의 내부에 균열과 파열구를 만드는 작업이다. 모더니즘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오직 균열과 파열구를 열어 숨쉴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선택이다. 즉 페미니즘적 전략이다.

혁명은 남근적이다. 이제 혁명은 불가능하다.

헤테로토피아.....내 작품에 보이는 음모나 가느다란 선, 희미한 글씨, 흐릿한 얼룩등은 이러한 헤테로토피아, 대항 배치의 인덱스들이다. 이러한 대항 배치가 기존의 배치 “안”에 있듯이 나의 작업도 모더니즘 “안”에 있다.

모더니즘 안의 이질공간.....이 공간에서 끊임없이 기존의 배치로부터 위협과 유혹을 받으며 나의 삶은 분열증을 일으킨다.

어지럽다.....오늘 밤에도 또 나는 약을 먹어야한다.

2002.5.29

김용익